

조인성 “김윤석, 시나리오 디테일 다 살리더라... 콤비 영광”

영화 ‘모가디슈’ 안기부 출신 정보요원 역

1998년 광고모델 데뷔...어느덧 24년 차

배우 조인성이 안기부 출신의 정보요원으로 세 얼굴을 드러냈다. 능글맞으면서도 거침없는 행동과 인물을 매끄럽게 소화한 그는 김윤석과 찰떡 호흡을 뽐낸다.

영화 ‘모가디슈’ 개봉을 하루 앞둔 27일 조인성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모가디슈’는 내전과 기아, 테러로 얼룩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소말리아의 상황과 이들의 필사적인 생존과 탈출을 담았다.

김윤석과 조인성이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신성 대사와 안기부 출신의 정보요원 강대진 참사관으로, 허준호와 구교환이 북한의 립용수 대사와 태준기 참사관으로 분했다.

조인성이 연기한 강대진 참사관은 할 말 다 하는 성격으로 판단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다.

내전의 한복판에서도 고립된 사람들과 생존하기 위해 여유를 잃지 않고 소말리아 경찰들과 협상을 시도한다.

그는 강대진 참사관을 연기하는데 있어 기존의 안기부 캐릭터와는 거리를 뒀다고 언급했다.

1990년대 시대상을 품은 인물이지만 전형적이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목적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 안 차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굴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다채로운 인물을 표현한다면 기존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인물들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새로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어 “영화가 목적하고 놓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숨통을 트는 역할이었으면 했다”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극 중 인상적이었던 국적불문 콤

블리시에 대해서는 “유학 생활하거나 영어 학원에 다닌 인물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어를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시대상과 맞게 좀 현실적인 영어를 하려고 극화해서 연기했다”고 답했다.

영화는 코로나19 확산 전 여행금지 국가인 소말리아 대신 모로코 현지에서 촬영을 마쳤다. 4개월간 100% 울로케이션을 진행하며 웅장한 분위기를 구현, 이국적인 풍광 자체가 영화 속 또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조인성은 “류승완 감독이기에 가능했던 프로덕션이었다”며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과 열린 귀가 류승완 감독의 힘이 아닌가 싶다. 경험들이 집약적으로 쌓인 현상이었다”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어 ‘모가디슈’에 이어 류 감독의 ‘밀수’에도 합류한 그는 “류 감독은 영화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영화 앞에서 어린아이, 순수한 사람이 된다”며 “‘밀수’는 시나리오도 제대로 못 보고 출연한 작품이다”고 했다.

‘모가디슈’에 이어 가장 큰 도전은 대선배 김윤석과의 콤비 호흡이었다. 조인성은 “윤석 선배와 케미, 앙상블을 살리는 것이 도전이었다”며 “뛰어난 배우시기 때문에 콤비로 보

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다. 선배가 이끌어주셔서 내 역할도 빛났다고 생각한다”고 추어올랐다.

이어 “김윤석 선배는 시나리오의 빈칸, 촬영 공간의 생생함 등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살리신다”며 “내가 보는 시점보다 넓게 영화를 아울러 몇 번을 감탄했다. 같이 연기하게 돼 그저 감동이고 영광이었다”고 고마워했다.

원톱 주연이 아닌 멀티 캐스팅인 이유도 작품을 선택한 계기가 됐다. 그는 “작품을 혼자 이끌어간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지만 그동안 틀어쥔 게 많아서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작품은 김윤석, 허준호 선배가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대로 움직이면 됐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에 놓여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모로코 촬영 현장을 회상하며 “결과적 영화 1편이 나왔지만 체감으로는 영화 3~4편을 같이한 느낌”이라며 “거의 생활을 함께했다. 현장은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을 모가디슈를 통해 느꼈다. 영화를 찍기에는 최적화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짚었다.

1998년 광고모델로 데뷔한 조인성은 어느덧 24년 차 배우가 됐다. ‘모가디슈’는 40대에 첫선을 보이는 작



품이기도 하다.

“20년 후에는 연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도 어렵네요. 연기에 대한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모가디슈’

를 기점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인사를 드렸으면 해요.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예능도 그렇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중들과 만나고 싶어요.”

SBS ‘꼬꼬무’ 정규 편성됐다...오늘 시즌2 중영

일정 기간 휴식 후 고정 프로그램 편성 예정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정규 편성됐다. 26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측은 스토리텔

러 고정 출연 중인 장항준, 장도연, 장성규의 영상을 통해 정규 편성 소식을 전했다. 장성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

게 된 게 너무 영광이다”라고 했고, 장항준 역시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화제가 되니까 기운이 난다. 신 나서 한다”며 호평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장도연은 “이제 우리 ‘꼬꼬무’가 시즌제를 벗어나서 정규편성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꼬꼬무2’는 오는 29일 21회를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한다. 일정 기간 휴식을 가진 후 시즌3가 아닌 매주 방송되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꼬꼬무’는 지난해 파일럿에 이어 시즌1을 성공적으로 방송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시즌2를 론칭, 최고 시청률 6.7%(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방송인 박수홍, 93년생 여친과 깜짝 결혼 발표

“혼인신고 마쳤다”

개그맨 박수홍이 결혼했다고 밝혔다.

28일 박수홍은 그가 운영 중인 반려묘 다홍이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오늘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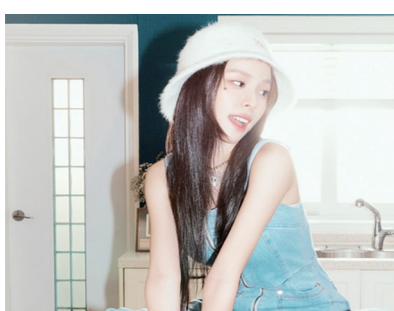
박수홍과 결혼한 부인은 앞서 친형과 법적 분쟁으로 사생활 폭로 하면서 알려졌다.

친형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과의 갈등은 재산 문제가 아닌 1993년생인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으며 박수홍이 거주중인 아파트 명의지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체리비, 2년 만에 신곡 ‘OOTD’...“상큼 발랄”



하이틴 영화 주인공 떠올라

가수 체리비(CherryB)가 새 싱글 ‘OOTD’를 오는 31일 오후 6시 공개한다. 음원 공개에 앞서 이날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데뷔 오버롤 스타일링으로 변신해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

다. 체리비의 신곡 발표는 2019년 5월 ‘러빙유(Lovin’ U)’ 이후 2년 만이다. 상큼 발랄한 매력을 담는다. 체리비는 “이번 싱글을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더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체리비는 2017년 11월 가요계에 등장했다.

김소혜 측 학폭 피해 글 작성자, 조사 결과 학폭 가해자

질투 나서 악의적 루머글 작성



지난 2월 배우 김소혜가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쓴 사람이 오히려 당시 김소혜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동기생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소혜의 소속사 에스엔피엔터테 인턴트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를 통해 루머 최초 게시자가 특정됐다”며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허위로 루머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음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직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는 오히려 중학교 재

학 당시 김소혜가 피해자였던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어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어린 마음에 질투로 인해 악의적 루머 글을 작성했으며 이를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루머 유포자 역시 경찰에 붙잡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해당 유포자는 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호기심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내막 다룬 ‘암살자들’, 다음달 12일 개봉

암살 실체 추적하는 작품

오는 8월12일 개봉하는 ‘암살자들’이 스페셜 아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남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해의 유수의 영화제가 인정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로 국내 개봉 확

정과 동시에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공개된 스페셜 아트 포스터는 우선 빨강과 파랑의 보색 대비는 색채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두 눈이 가려졌지만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이미지의 인물을 통해 영화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단박에 짐작하게 한다.

또한 포스터 좌측에는 암살이 벌어진 장소인 공항 CCTV에 찍힌 김정남의 뒷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데뷔 14주년 소녀시대,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예정



그들 소녀시대가 ‘유퀴즈’에 뜬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

완전체 출연 조율중

측은 28일 “소녀시대가 녹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녹화 일정과 방송 일자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소녀시대는 지난 2007년 데뷔해 올해 14주년을 맞았다.

데뷔 이후 소녀시대는 ‘다시만남의 계절’, ‘지(Gee)’, ‘오(Oh)’, ‘뎀 데빌 런’, ‘홀리데이’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뉴스